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정 태 연[†] 노 현 정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비취업모와 취업모가 지각하는 자녀양육에서의 양육죄책감의 종류, 정도 및 원인 그리고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과 소아과 병원을 다니는 만 2세~7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양육 죄책감의 정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양육 죄책감의 원인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함께 있지 못해서나 아이가 아플 때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 반면, 비취업모는 질적 양육을 못할 때와 부부싸움을 할 때 죄책감을 더 많이 느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 본 결과 통계와 관대함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가 자녀를 더 통제하면서도 더 관대하게 대하는 특성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죄책감이 양육행동과는 큰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취업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취업모, 비취업모, 양육죄책감, 양육행동,

* 이 논문은 2004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출생하기 전 태내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성인기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성장 및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녀는 자신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발달, 정서발달 등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능력의 토대를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한다(부모역할과 자녀교육, 2002).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 즉, 사회화의 기초를 구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태도는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신춘자, 1992; Bates & Bayles, 1988; Hurlock, 1978).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가정에서도 자녀양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의 전담하기 때문에, 가장 친숙하고 친밀한 인물로서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애정 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후 자녀가 발달시키는 대인관계의 원형이 되며(Ladd & Golter, 1988),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경래, 1997 재인용). 결국 유아의 초기 사회적, 정서적 경험은 가족원,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초기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으며(Webster-Stratton, 1988),

생활이 자유롭지 못해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는 등 심리적인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조혜승, 1996; Aibidin, 1990).

많은 요인들이 어머니-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하나가 어머니의 취업이다. 오늘날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도 자료를 보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12월 현재 여성의 49.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65.8%에 달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특징이 M자형에서 \cap (역-U)자형으로 변하고 있다. 즉, 20대 미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다가 결혼 및 유아교육으로 30대에 감소한 후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형에서, 여성의 취업이 20대부터 4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50대부터 감소하는 \cap (역-U)자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여성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다룬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취업이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령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양육의 질이나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 등이다. 그러나 어머니-자녀 관계와 관련해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느끼게 되는 양육죄책감이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러한 양육죄책감의 종류나 원인은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취업을 유인하는 근대적 가치와 여전히 어머니의 아동양육을 강제하는 전통적 가치 사이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죄책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죄책감의 종류 및 원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양육죄책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가 그리고 이 둘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육죄책감

정서이론가들은 본질적으로 죄책감을 개인이 표준을 위반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반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Draghi-Lorenz, 2001), 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의 자기와 내재화된 양심 간에 생기는 개인의 도덕적 수준에서의 차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Ausubel, 1995; Benedict, 1946; Freud, 1930, 1961). 이러한 죄책감은 긴장, 후회, 양심의 가책을 포함하지만, 개인의 핵심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iedenthal, Tangney & Gavanski, 1994). 또한 개인이 죄책감을 지각할 때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간의 적절한 괴리는 실제적 자아 수준을 높여주는 동기적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두 자아 간의 지나친 불일치는 개인에게 부적응이나 죄책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Higgins, 1987; Markus & Nurius, 198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양육죄책감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양육행동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행동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발하기 쉬우며, 도덕적으로 그러한 차이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일어나기 쉽다. 어머니가 느끼는 이러한 양육죄책감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녀와의 상호작용 맥락이 다르고, 어머니가 처해 있는 사회적 및 개인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대부분의 취업모들은 취업으로 인해 새로운 역할이 생겨남으로써 자녀양육과 교육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서동인, 1991; Mann & Thornburg, 1987). 즉, “어머니의 취업이 경제적으로나 정신건강 상으로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는 근대적 가치관과 “좋은 어머니는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양육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취업모는 어머니로서의 심리적 죄책감 내지 불안함을 경험하고, 때로 자신이 ‘좋은 어머니’가 못된다는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Belsky, 1992). 1986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상자의 80% 이상이 자녀양육 상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가령, 취업모들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이중적인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나 상태를 자녀에게 전가할 수 있다(박성옥, 1995).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모들은 주로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양육죄책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죄책감은 때로 자녀에게 과잉보상을 가져다준다(신민호, 1996). 예를 들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죄책감을 취업으로 인해 여유로워진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경우, 자녀들은 퇴행적, 수동적, 소극적으로 되어 낮은 지적행동을 보이게 되고, 또래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

적 죄책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 탁아만족도, 탁아기관 교사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취업모의 죄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Mann & Thornburg, 1987). 더욱이, 한국의 경우 적절한 비용으로 대체할 만한 탁아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취업모에게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탁아의 질적 특성이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축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및 탁아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취업모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Galinsky, 1992).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모의 심리에 관한 역할갈등, 우울증, 스트레스 그리고 격리불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송진숙, 조복희 1997), 어머니 취업에 따른 양육죄책감을 논의하기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와는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양육은 어머니의 시간과 자원을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하고(Webster-Stratton, 1988),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며 생활의 부자유스러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조혜승, 1996; Aibidin, 1990). 이러한 측면은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에게서 특히 두드러질 수 있다. 취업모는 자신의 취업을 인해 양육과 가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벗어날 수 있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24시간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찾지 못함에 따라 양육과 가사는 비취업모에게 더 많은 심리적 갈등과 부담을 야기한다(고성혜, 1994).

이처럼, 비취업모는 장시간의 양육과 가사

로 인한 시간부족 및 자신의 욕구 억제나 포기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한다(Gove & Hughes, 1979; Lopata, 1971). 또한,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정체감, 자녀의 장래 및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불안감, 신체적 피로 및 구속감 그리고 가족구성원 간 불화 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양육하게 되는 비일관적 행동특성을 가져온다(이인숙, 1994). 또한,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가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 자신의 미취업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자녀 양육에서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한 죄책감을 유발하는 원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취업모의 죄책감이 어머니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취업모는 계속되는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질적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육행동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고윤희, 2001).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들의 성격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사회·문화적 배

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적 조건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정희, 1986). 오늘날 취업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양육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Hoffman, 1961), 기존의 연구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먼저 취업모의 경우 상당수의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독립심을 더 강조하고, 자녀를 보다 엄격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양육했는데(Gold, 1978),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자기성취능력, 자기통제능력, 자존감 등을 향상시키고(조복희, 1995), 자녀의 높은 활동성과 자기효능감 및 평등주의적 성역할 개념을 향상시켰다(Hoffman, 1974, 1987). 특히, 딸의 경우 취업모의 딸은 비취업모의 딸보다 대부분의 일에서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행성적도 좋았으며, 그들 역시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존중했으며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Hoffman, 1983).

반면에,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한 연구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취업모에 비해 더 애정적, 수용적, 외향적이었고(우대식, 1992; 이은수, 1985), 비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것으로 지각했다(오순환, 1990; 함미영, 1993). 또한, 비취업모의 자녀가 어머니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며(안유경, 1994) 자신의 가정을 더 자율적인 것으로 인지했다(유수남, 1980). 자녀의 성격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취업모의 자녀가 더 높

은 자기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으며(Bowlby, 1979; Ruman, 1956), 활동성, 안정성, 사회성은 더 높고, 충동성은 더 낮았음을 보여준다(김제환, 1978; 유영주, 1971).

또 다른 연구들은 취업자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양육행동과 관련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Erangh, 1974; Hoffman, 1974). 예를 들면, 취업동기가 자녀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동기를 경제적 이유, 자아실현 이유 그리고 복합적 이유로 나눌 때,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하여 직업에 만족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신체발달, 자조성, 사회성 및 지적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다(유신희, 1986). 또한, 취업에 만족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고, 전문직 종사자가 서비스직 종사자보다 그러한 경향이 더 강했다(김윤숙, 1989). 이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더욱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한다(전보윤, 1989; Hoffman, 1961). 이는, 어머니 취업의 영향이 사회 경제적 수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사회 경제적 수준이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또한,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행동과 태도의 불일치, 즉, 밖에서 일은 하지만 일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비취업모의 가사에 대한 행동과 태도 사이의 불일치 즉, 일을 하지는 않지만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보다 아동양육에 덜 치명적이다(Farel, 1980). 이는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가 밖에 나가 일하므로 취업에 대한 행동과

태도 사이의 불일치로 야기된 갈등이 자녀에게 덜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가정에서 장시간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할 때 경제적 수준 이외에도 여러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양육행동의 어떠한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죄책감의 종류, 정도 및 원인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현재 및 이상적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참가자

본 연구에 참가한 경기도 수원 거주 어머니들은 유아 교육 기관과 소아과 병원에 다니는 만 2~7세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총 3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88부(회수율 90.0%)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26부

를 제외한 총 262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취업모는 114명(43.5%)이었고, 비취업모는 148명(56.5%)이었다.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관계, 부모의 교육정도와 직업 및 근무형태, 월수입, 주거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참가자들의 자녀는 남아가 120명(45.8%), 여아가 142명(54.2%)이었으며, 연령은 만4세가 83명(31.7%), 만5세가 60명(22.9%), 만 2세가 18명(6.9%)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162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 고졸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역시 대졸이 171명(6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대학원졸 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121명(46.2%), 전문직 46명(17.6%), 사업, 그리고 교육직업 순이고, 취업주부인 경우 어머니 직업유형은 회사원 44명(16.8), 교육직업 37명(32.5%), 전문직 13명 (11.4%)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전일제가 74명(65.8%), 파트타임이 21명(18.4%), 반일제가 18명(15.8%)이었다. 아버지 수입은 200-300만원이 78명(29.8%)으로 많았고, 어머니 수입은 100 -200만원이 46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아파트, 주택, 연립 순이었으며,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80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었다.

측정도구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죄책감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참가자에게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질문내용으로 1)언제 혹은 어떠한 경우에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는지 2)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등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의 반응을 토대

로 죄책감 측정도구를 만들었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풀이를 했을 경우, 야단치거나 혼냈을 경우, 함께 있지 못할 경우, 체벌을 했을 경우,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경제적 문제를 느낄 경우, 효율적인 양육이 안 될 경우 등이다. 각 문항에서는 죄책감의 정도 및 왜 그러한 감정으로 느끼는지 등의 하부질문으로 되어 있다. ‘1-매우 낮음’에서 ‘7-매우 높음’의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α)는 .82에서 .86이다.

김의철과 박영신(1997)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해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양육행동은 대리적 성취, 성취압력, 통제, 갈등, 관대함, 희생의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문항에 대해 1)현재 행하고 있는 양육행동, 2)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행동을 답하도록 하였다. ‘1-전혀 아니다’에서 ‘7-매우 그렇다’의 7점 Likert형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갈등은 역코딩하여 갈등부재로 불렀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α)는 .77에서 .90이다.

절차

양육죄책감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양육행동 질문지를 총 320명의 어머니에게 배포하여 288부(비취업모;148명, 취업모; 114명)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26부를 제외한 총 262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된 개방형 질문지를 빈도 분석하여 죄의식에 관한 7점 척도의 양적 질문지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 질문지를 1차 자료수집에 응답한 262명의 어머니들에게 다시 배포하여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양육죄책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로 하

표 1.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빈도 ()는 백분율

죄책감 이유 \ 취업유무	취업모(N=114)	비취업모(N=148)	전 체
신경질 또는 화풀이	13.5(15)	30.4(46)	22.9(61)
함께 있지 못함	36.6(43)	0.0(00)	16.0(43)
야단침 또는 혼냄	6.7(8)	20.3(31)	14.5(39)
체벌	6.1(8)	12.8(21)	9.9(29)
질적 양육의 어려움	16.7(19)	19.6(30)	18.3(49)
경제적 문제	3.5(4)	6.1(10)	5.0(13)
아이의 아픔	8.8(10)	2.0(3)	5.0(13)
부부싸움	3.5(4)	3.4(5)	3.4(9)

주.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 $p < .05$. ** $p < .01$. *** $p < .001$

여금 어떤 경우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기술하게 하였다.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응답한 것에 기초해 8문항의 질문지를 만들어 2차 측정을 하였다.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에게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신경질을 내거나 화풀이를 했을 경우, 2)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할 경우, 3) 야단치거나 혼냈을 경우, 4) 체벌을 가했을 경우, 5) 질적 양육이 어려울 경우, 6) 경제적 문제를 느꼈을 경우, 7) 아이가 아플 경우, 8)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이다. 각 문항은 3개의 하위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chi^2(1, 260) = 82.34, p < .001$. 전체적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화풀이 할 때, 질적 양육을 하지 못했을 때, 함께 있지 못할 때,

야단치거나 혼낼 때, 체벌할 때 순으로 양육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질적 양육을 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자주 느끼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화풀이를 할 때, 자녀를 야단치거나 혼낼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죄책감은 비취업모(6.1%)와 취업모(3.5%) 모두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취업 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 점수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많은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신경질을 부리거나, 함께 있지 못했을 때, 야단을 쳤을 때,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는 취업모가 더 큰 죄책감을 느낀 반면 질적 양육의 어려움과 부부싸움 요인에서는 비취업모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책감 전체에

표 2.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죄책감 요인에 따른 차이 ()는 표준편차

죄책감 이유	취업유무	취업모(N=114)	비취업모(N=148)	t
신경질 또는 화풀이		6.01(1.19)	5.76(1.00)	1.77
함께 있지 못함		6.01(1.17)	3.95(1.36)	12.74***
야단침 또는 혼냄		5.38(1.21)	4.74(1.14)	4.22***
체벌		5.37(1.48)	5.28(1.37)	0.51
질적 양육의 어려움		4.96(1.10)	5.43(1.02)	-3.48**
경제적 문제		4.23(1.37)	4.34(1.22)	-0.68
아이의 아픔		6.06(1.21)	4.79(1.12)	8.53***
부부싸움		4.69(1.81)	5.17(1.39)	-2.26*
죄책감 전체		5.34(0.65)	4.93(0.69)	4.70***

주.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서도 취업모(M = 5.34)와 비취업모(M = 4.93)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느끼는 이유 즉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죄책감의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가 죄책감을 세 가지 원인 중 두 가지 원인에서 취업모에

표 3.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죄책감 하위변인에서의 차이 ()는 표준편차

죄책감종류	죄책감의 원인	취업모	비취업모	t
신경질 또는 화풀이	화풀이 대상으로 대함	5.44(1.33)	5.68(1.32)	-1.41
	일관성 결여	5.65(1.28)	6.02(0.97)	-2.48*
	정도의 지나침	5.25(1.14)	5.79(0.98)	-3.90***
함께 있지 못함	아이가 필요 시 부재	6.31(0.85)	3.65(1.49)	17.94***
	챙겨주지 못함	5.88(1.09)	5.20(1.21)	4.61***
	아이가 놀이방에서 장시간	5.87(1.04)	4.22(1.23)	11.45***
야단침 또는 혼냄	지나쳤다 싶을 때	5.82(0.83)	5.59(1.09)	1.83
	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할 때	5.12(1.12)	5.07(1.36)	0.30
	아이의 행동, 말을 오해했을 때	5.47(1.12)	5.70(0.82)	-1.83
체벌	우발적으로 그랬을 경우	5.39(1.42)	6.22(1.00)	-5.13***
	아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	4.83(1.35)	5.76(0.78)	-6.32***
	내 자식이라서	4.27(1.53)	5.74(0.85)	-8.86***
질적 양육의 어려움	아이가 심심해할 때	4.90(1.42)	5.86(0.90)	-6.03***
	노력하면 더 좋을 텐데	5.43(0.91)	5.80(0.73)	-3.42**
	아이가 비디오를 볼 때	5.84(1.08)	5.47(0.91)	2.94**
경제적 문제	주변사람과 비교	4.61(1.38)	4.55(1.30)	0.34
	능력부족	4.34(1.26)	4.39(1.10)	-0.30
	내 자식이라서	4.61(1.22)	4.68(1.23)	-0.41
아플 때	내 잘못된 것 같아서	5.65(1.32)	5.16(1.36)	2.87**
	함께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6.03(1.22)	3.72(1.15)	15.31***
	내 몸이 약해서	4.49(2.01)	3.45(1.36)	4.58***
부부싸움	놀라고 불안해할 때	4.89(1.55)	5.36(0.93)	-2.76**
	눈치 볼 때	4.61(1.44)	5.26(1.00)	-3.92***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므로	5.07(1.34)	5.32(1.06)	-1.69

주.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 p < .05. ** p < .01. *** p < .001

비해 비취업모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특히, 아이를 일관성이 없이 대하는 것이 죄책감의 큰 원인이었다.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의 세 가지 원인 모두에서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가 높은 점수를 보였고, 특히 필요할 때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높았다. 야단치거나 혼낸 것에 대해서 느끼는 죄책감의 경우, 지나쳤다고 싶은 경우에는 취업모가 그리고 아이를 오해한 경우에는 비취업모가 더 많은 죄책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체벌을 했을 경우 세 가지 이유 모두에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가 더 높았는데,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체벌을 가했을 경우 가장 많은 죄책감을 보였다. 질적 양육이 되지 않을 경우, 아이가 심심해 할 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비취업모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 반대로, 아이가 비디오를 볼 경우에는 취업모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 경제적 문제를 느꼈을 때는 두 집단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아플 때는 세 가지

이유 모두에서 취업모의 죄책감이 더 높았으며, 특히 자신이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아이가 아픈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는 비취업모가 아이가 놀라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에서는 아이가 놀라고 불안해 할 때와 아이가 눈치를 볼 때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행동 차이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현재 행하고 있는 양육 행동과 어머니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행동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양육행동의 여러 하위 요인들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행동수준이 현재 행하고 있는 양육행동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현재 양육 행동의 경

표 4. 취업유무에 따른 현재 양육행동과 이상적 양육행동 ()는 표준편차

현재 양육행동	취업모 (N=114)	비취업모 (N=148)	이상적 양육행동	취업모 (N=114)	비취업모 (N=148)
대리적 성취	4.78(0.67)	4.67(0.75)	대리적 성취	5.08(0.90)	5.12(0.96)
성취압력	4.49(0.75)	4.38(0.72)	성취압력	5.64(0.82)	5.71(0.87)
통제	4.64(0.70)	4.44(0.75)	통제	4.62(0.87)	4.55(0.78)
갈등부재	3.54(0.69)	3.74(0.65)	갈등부재	5.44(0.91)	5.28(1.10)
관대함	4.51(0.71)	4.28(0.84)	관대함	5.38(0.81)	5.30(0.67)
희생	4.36(0.69)	4.31(0.76)	희생	4.47(1.03)	4.55(1.11)
전체	4.54(0.60)	4.40(0.68)	전체	4.62(0.61)	4.65(0.58)

주.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p* < .05.

우, 취업모의 평균점수는 4.54이고 비취업모의 평균점수는 4.40이었으며, 이 두 점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었다, $F_{(1, 260)} = 2.92, p < .10$. 하위요인별로 볼 때, 통제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_{(1, 260)} = 5.02, p < .05$. 또한, 관대함에서도 취업모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_{(1, 260)} = 5.09, p < .05$. 나머지 차원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이상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비취업모의 양육행동 평균 점수가 4.65이며 비취업모의 양육행동 평균 점수가 4.6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하위요인별로도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현재 양육행동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행동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취업모의 경우 차이점수 평균은 0.08이고, 비취업모는 0.25로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이 있었다, $F_{(1, 260)} = 2.91, p < .10$. 갈등부채의 차이점수에서 취업모(1.89); 비취업모(1.57)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이 있었다, $F_{(1, 260)} = 3.34, p < .10$. 나머지 차원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적 양육행동과 현재양육행동의 차이를 보면, 갈등부채 다음으로 성취압력과 관대함에서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었고, 그 나머지 요인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의 양육행동과 죄책감의 전체점수와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서 죄책감은 현재 양육행동의 어떠한 하위요인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적 양육행동의 경우, 취업모에게서 대리적 성취와 죄책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통제와 갈등 차원은 죄책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죄의식이 높을수록 더욱 더 높은 수준의 대리적 성취 양육태도를 이상

표 5.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계수

죄책감	양육행동	취업유무	성취	압력	통제	갈등	관대	희생
죄책감 전체	현재	취업모	.16	.11	.02	-.03	.06	.08
	양육행동	비취업모	-.06	-.04	-.05	.03	-.05	-.08
죄책감 전체	이상적	취업모	.22*	.11	-.25*	-.25*	-.08	.15
	양육행동	비취업모	-.03	-.00	-.04	-.05	-.06	-.15
죄책감 전체	양육행동	취업모	.08	.00	.12	-.19 ⁺	-.11	.09
	차이점수	비취업모	.02	.03	.01	-.05	.00	-.08

주.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 $p < .10$ * $p < .05$.

적으로 본 반면, 덜 통제적이고 덜 갈등적인 양육 태도를 이상적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비취업모의 경우 죄책감은 이상적인 양육행동의 어떠한 하위차원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상적 양육행동과 현재 양육행동 간의 차이 점수가 죄책감 전체점수와 갖는 상관을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 계산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의 경우 죄책감이 갈등의 차이점수와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이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죄책감이 양육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죄책감 및 양육행동과 관련된 구체적 측면들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에 비취업

모와 취업모별로 18개의 양육행동 점수 [6개 하위차원 X 3가지 형태(현재, 이상적 및 차이 점수)] 각각에 대하여 8개의 죄책감 하위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준거변인에 대하여 다수의 예측변인으로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한 이유는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추후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대한 개념적 구성이나 척도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업모 집단에 대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현재 및 이상적 희생은 야단치거나 혼낼 때의 죄책감이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로 인한 죄책감이 클수록

표 6. 취업모의 양육행동(준거변인)에 대한 죄책감(예측변인)의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R (R ²)	β	t
희생(이상적)	야단치거나 혼냄	.28(.078)	.28	2.89**
희생(차이점수)	야단치거나 혼냄	.34(.116)	.34	3.66***
성취압력(차이점수)	야단치거나 혼냄	.23(.053)	.23	2.38*

주.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준거변인)에 대한 죄책감(예측변인)의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R (R ²)	β	t
대리적 성취(현재)	함께 있지 못함	.18(.032)	-.18	-2.21*
성취압력(현재)	함께 있지 못함	.24(.058)	-.24	-2.72**
	체벌		.20	2.24*
희생(현재)	아플 때	.18(.032)	-.18	-2.16*
희생(이상적)	아플 때	.17(.029)	-.17	-2.13*
갈등(차이점수)	함께 있지 못함	.16(.026)	.16	1.98*

주. 측정은 7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 $p < .05$. ** $p < .01$.

희생적인 양육행동도 증가했다. 차이점수에 근거한 성취압력 역시 야단치거나 혼낼 때의 죄책감이 유의미하게 설명해서, 이런 죄책감이 클수록 현재와 이상적 성취압력 간의 차이도 더 컸다. 전반적으로, 취업모의 경우, 양육행동 중에서 희생과 성취압력과 관련된 측면은 모두 야단치거나 혼낼 때의 죄책감이 크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비취업모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모 집단에 대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현재의 대리적 성취는 함께 있지 못할 때의 죄책감이 그리고 현재의 성취압력은 함께 있지 못할 때와 체벌시의 죄책감이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 때, 함께 있지 못함에 따른 죄책감이 클수록 대리적 성취나 성취압력은 낮았지만, 체벌이 높을수록 성취압력도 높았다. 현재 및 이상적인 희생은 아플 때 느끼는 죄책감이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차이점수에 근거한 갈등은 함께 있지 못할 때의 죄책감이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는데, 이러한 죄책감이 클수록 현재의 갈등과 이상적 갈등 간의 차이가 더 컸다. 전반적으로 볼 때, 비취업모의 경우, 양육행동 중에서 성위, 희생 및 갈등과 관련된 측면은 주로 함께 있지 못함, 체벌, 및 아플 때 느끼는 죄책감이 크게 설명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2세에서 7세 사이의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는 죄책감의 원인과 종류 및 원인을 알아보았고, 양육 행동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죄책감의 정도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함께 있지 못할 때, 야단치거나 혼낼 때, 아이가 아플 때 더 많은 죄책감을 느꼈고, 비취업모는 질적 양육이 어려울 때, 부부싸움 할 때 더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 또한,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신경질이나 화풀이, 야단치거나 혼냄, 체벌의 빈도가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현재 양육행동에서는 취업모가 이상적 양육행동에서는 비취업모가 그리고 현재 양육행동과 이상적 양육행동의 차이는 비취업모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큰 상관은 없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논의 하겠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 죄책감의 차이

본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종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함께 있지 못할 때, 혼내거나 야단칠 때, 아이가 아플 때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적 양육이 어려울 때, 부부싸움 할 때 비취업모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어머니의 염려와 걱정이 심리적인 죄책감을 가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취업모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취업모들이 자녀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미

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도 잘해줘야 한다는 기본적 태도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생기는 죄책감이라고 볼 수 있다.

함께 있지 못함의 원인도 이러한 해석과 일맥상통한다. 취업모의 경우 자신이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하고, 놀이방등 다른 사람의 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비취업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타인의 손에 의해 아이가 양육된다는 것에 더욱 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 이러한 양육 죄책감은 출근하기 위해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옷을 입혀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갈 때 더 많이 느낀다는 답변에 의해 더욱 지지될 수 있다.

아이에 대한 이러한 죄책감 즉, 취업모의 경우 평소 아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질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양육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즉, 적은 시간이나마 아이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기 때문에 비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모는 양보다는 질적 양육 행동을 시도하고 따라서 질적 양육을 못함에 따른 죄책감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고 보여 진다.

한편, 비취업모의 죄책감에 관한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육체적 피로 및 부담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고, 때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 비일관적인 양육을 하게 만들어 양육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고성혜(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2~3세의 걸음

마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면서(Erkison, 1960),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걸음마기 유아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Gross et al., 1989; 1994).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은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내지 효능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Kutzner, 1985; Gross et al., 1999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비취업모의 경우,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과도한 육체적 노력과 복잡한 심리적 갈등에 직면하기 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절적인 어려움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과 일치하게,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신경질이나 화풀이, 야단치거나 혼냄, 체벌의 빈도가 더 많았다. 이는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양한 자녀의 요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 아니라, 과도한 신체적 활동으로 심신의 피로를 경험하고, 잠시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이에게 투사되어 실제로 아이에게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고 체벌을 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비취업모와 취업모 모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양육 죄책감을 지니고 있으나, 죄책감을 느끼는 원인이나 종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죄책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본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몇몇 하위차원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현재양육행동은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이상적 양육행동과 현재양육행동 간의 차이에서는 비취업모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 차이가 크지 않고 꽤 미미하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논의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이 결과는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비취업모의 경우 이상적 양육행동에 비해 현재 양육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문제에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양육행동에 대한 결과에서, 현재양육행동 하위요인에서 통제와 관대함에서는 취업모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취업모의 자녀 양육이 비취업모에 비해 더 엄격하다는 일부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Gold, andress, 1978).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아이를 기관이나 타인에게 맡기면서 야기되는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불충분한 점들을 더욱 통제적인 양육 행동으로 보완하려는 경향성 그리고 동시에 평소 아이에게 옆에 있으면서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행동으로 더욱 관대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취업모에게 있어 통제와 관대함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양육과 애정을 보충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 행동은 자녀에 대한 일관적 교육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안함에 따른 양육 행동으로 치우쳐 자칫 비일관적 양육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갈등부재, 성취압력, 관대함 차원에서 이상적 양육행동과 현재양육행동의 차이는 두 집단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아동양육에서 어머니들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아동양육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어려운 과업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이 적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특히, 취업모들은 이러한 갈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아동양육과정 속에서 어머니들은 때로 자녀를 지나치게 엄하거나 혹독하게 다룰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이 이상적으로 높은 관대함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서 지금보다도 좀 더 성취압력을 가하려는 학업성취 중심적인 양육행동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느끼는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은 거의 대부분 매우 취약했지만, 양육죄책감은 현실적 양육행동보다 이상적 양육행동과 어느 정도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주로 죄책감이 현실적 양육 행동보다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녀양육은 이래야 한다는 양육 행동에 대한 기본 전제가 어떠한가에 따라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 죄책감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적 양육행동과 현실적 양육행동 간의 차이점수가 죄책감 점수와 큰 상관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서론에서 논한 것처럼,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간의 괴리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Higgins, 1987; Markus & Nurius, 198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후속연구들을 통해 좀 더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의 경우, 죄책감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어떤 유형의 죄책감이 양육행동을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의 경우 야단치거나 혼냄으로써 드는 죄책감이 희생과 성취압력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함께 있지 못하거나 자녀가 아플 때 드는 죄책감이 성취나 희생 관련 측면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뜻 보기에 표 1과 2 및 3에서 제시한 죄책감의 결과와 비일관적인 것 같다. 그러나 앞의 결과는 집단 간 비교를 한 것이고, 이것은 주어진 집단 내에서 개인차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특정 양육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특정 유형의 죄책감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양은 상당히 적었다. 표 5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간에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설명량이 낮게 나타난 것은 매우 당

연하다. 이러한 낮은 설명량에 대한 근거를 생각해 보면, 첫째 실질적으로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과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러한 죄책감이 하나의 심리적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육행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양육죄책감을 느끼지만, 행동적인 수준에서는 이러한 의식적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양육죄책감의 측정과 관련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좀 더 정밀하고 타당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탐색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죄책감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양육행동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양육죄책감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그림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중 죄책감 척도는 개발된 것이 없어 연구자가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육죄책감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취업모와 취업모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육죄책감에 대한 적합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차후에는 아버지를 포함시킨 연구를 수행해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업으로 인한 여성의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정부차원이나 취업현장에서 심각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여성의 활동과 능력발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열풍이나 잘못된 양육태도관은 자녀의 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4).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윤희 (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희 (1985). 한국 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향 (1978).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윤숙 (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향, 최외선 (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의사소통 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8(2), 69-86.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부모역할과 자녀교육 (2002). 학지사
- 박미령 (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옥 (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성영혜 (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호 (200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자아존중감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춘자 (1981). 기혼직업여성의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진숙, 조복희 (1997). 탁아의 질과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대한

- 가정학회지 35(2), 48-76.
- 안유경 (1994).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연, 박성연 (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 유신희 (1986).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58-75.
- 유수남 (1980).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가정환경과 아동의 성격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래 (1989).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만족도가 아동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1994). 도시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이종숙 (1989). 확대기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4(1), 71-94.
- 전보윤 (1989).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만족도가 아동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 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탐색.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조복희, 박성옥 (199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13, 16-37.
- 조혜승 (1996).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1997). 한국통계연보.
- 최규련, 서동인 (1995). 맞벌이가족 연구의 현황.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한국가족학연구회 편, pp. 47-98).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가족학. 서울: 하우.
- Abidin, R. P.(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 Abusul. (1995). The meaning of maternal employment for mother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56, 350-360.
- Bates & Bayles (1988).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interaction, and the competence of the child in school.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7, (5, Serial No.197).
- Benedict. (1946).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n-Ze'ev, A. (1997). Emotions and morality. *J. Value Inq.* 31,195-21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owlby, J., (1979). Attachment and loss. *Volume 1, Attachment, Basic Books, New York.*
- Brody, G. H., Flore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 Draghi-Lorenz, (2001). Rethinking the development of "nonbasic" emotions: A critical review of

- existing theories. *Developmental Review*, 21, 263-304.
- Erikson, E. (1960).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reud, S. (1910).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sycho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1.
- Gold, (1978).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Comparing preterm and fullterm group.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 1-9.
- Goves & Hughes. (1979). Maternal confidence during Comparing preterm and fullterm group.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 1-9.
- Gross, D., Rocissano, L., & Roncoli, M. (1989).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 hood: Comparing preterm and fullterm group.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 1-9.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y Review*, 94, 319-340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Company.
- Kutzner. (1985).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 Ladd, Golter. (1988).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twelve and eighteen months: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5-985.
- Lopata.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arkus, Nurius. (1988).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 301-311.
- Monde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s psychology*, 17, 73-78.
- Niedenthal, P. M., Tangney, J. P.,Gavanski, I. (1994). "If only I weren't" versus "If only I hadn't": distinguishing shame and guilt in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84-595.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 Sage Publications.
- Ruman, I. J. (1956).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 A structural theory.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Emotions, relationship, and health*. pp. 11-36. Beberly Hills, CA: Sage.
- Spitze, G. (1988). Womens employment a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Aug), 595-618.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onal role maternal self-efficacy.*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bster-Stratton, C. (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White, J. D. (1978). Are working women really more satisfied?; Evidence from several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May), 301-313.

Differences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Mothers in Parenting Guilt and Behaviors

Taeyun Jung

Hyunjung Roh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in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behavior. A total of two hundred sixty-two (N=262) mothers who had children from 2 to 7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easurement instruments are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ere reliable differences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in the reason, kind and degree of their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behavior. That is, employed mothers felt parenting guilt more for “not being able to with the child when their children need mother and when their children are sick” and employed mothers treated their child more controlling and more softly than unemployed mothers. Generally, there were low correlations between parenting guilt and parenting behaviors in groups.

key words : *Employed mother, Unemployed mother, Parenting Guilt, Parenting Behaviors*

1차 원고접수: 2005. 3. 4.

심사통과접수: 2005. 6. 1.

최종원고접수: 2005. 6. 15.